

2016.03.15

세인관세법인, 미국세관 FTA 특혜원산지 불인정에 대한 PROTEST(이의신청) 성공

세인관세법인은 지난 1월 **미국세관**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관련 한국산 특혜관세 불인정 결정에 대한 **PROTEST(이의신청)결과, 최종적으로 '한국산 인정'**을 받았습니다.

* **Protest란?**

미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결과(CBP Form29)에 따라 '한국산 불인정'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현지 납세자가 미국 관세청을 상대로 청구하는 **불복행정 절차**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한-미 FTA 특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자동차부품 회사인 A사는, 미국세관의 원산지검증요청에 대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적절히 준비하지 못해 **원산지불인정 및 수십만불의 관세를 추징** 당하였습니다.

이에 PROTEST 신청하여, **기존의 원산지불인정 결정을 뒤집고 한국산 인정 및 추징관세를 환급 받는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상기 사례와 같이 미국 현지 원산지검증의 입증자료 미비로 FTA 특혜관세 불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PROTEST 절차**를 통하여 추징세액을 돌려받고 관세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세인관세법인 FTA팀**으로 가능합니다.

(02-6011-3091, 담당자 : 김대권관세사)

세인관세법인, FTA 분야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세인관세법인 “美세관 한국산 불인정 결정에 따른 추징관세 다시 돌려받다”

기사입력

세인관세법인(대표 : 박병호)은 지난 1월 26일 미국 앨라배마 모빌 세관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관련 A사의 특혜관세 불인정 결정에 대한 PROTEST(이의신청)결과 최종적으로 ‘한국산 인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사는 국내 자동차부품 회사로 지난 2012년부터 미국 세관에 한-미FTA 특혜관세 신청을 꾸준히 해왔으며 최근 들어 원산지검증 요청을 많이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임을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수십만불의 관세를 추징당했고 결과적으로 미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져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세인관세법인은 한국산 불인정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원산지검증단계인 CF28단계와는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의 원산지불인정 결정을 뒤집고 한국산 인정 및 추징관세를 다시 돌려받는 성과를 이뤄냈다.

A사 관계자는 원산지검증 결과 한국산 불인정 통지가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추징관세를 다시 돌려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금번 프로젝트 이후 협력업체 원산지관리 교육 등 관리업무 강화 및 원산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상시 관리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년부터 미국 수출 완성차가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는 첫 해이니만큼 완성차 및 부품업계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만약 최초 원산지 검증 단계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PROTEST(이의신청)절차를 통해 관세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시사점이다.

세인관세법인은 코트라 자동차산업 FTA활용 전문인력 양성 과정 수행기관이며 국내외 굴지의 완성차회사 및 부품회사들과 FTA 및 관세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